

POLITICS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1층 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전남도교육청·전남경찰청·전남지방우정청·전라남도 소방본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 등 7개 기관의 선거사무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선거관리 인력·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 투표용지 등 보관·수(회)송 경비(순찰), 선거유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사전)투·개표소 안전관리 대책 등이다.

전남선관위는 참석한 각 기관과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각 기관이 투·개표 절차사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정확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했다.

선거관리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 등 많은 인적 자원과 시설·장비 등 물적 자원이 짧은 기간에 투입되는 국가적 사무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짧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관리를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

시민이 우수 정책 선별한다

공공기관 확대·대장정 시작

시민이 직접 광주시의 우수정책을 선별하고 심사하는 ‘2025년 정책평가박람회’의 9개월 대장정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올해 ‘정책평가박람회’의 첫 단추인 스타후보정책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를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시민과 공무원원을 대상으로 광주온(ON) 시민소통 플랫폼 또는 기관 행정포털에서 각각 실시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편리한 도시(교통·안전) 12건, 플랫폼도시(관광·문화·체육) 16건, 돌봄도시(복지·돌봄) 13건, 활력도시(산업·경제) 13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교육·청년) 11건 등 5대 분야별 주요 정책 65건을 제출받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실·국에서 제출된 65건의 정책 중 올해 기대되는 정책을 5대 분야별로 2개씩 총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분야별 6~7건씩 총 30여 개의 ‘스타후보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5월 24일 ‘시민의 날’에 이들 후보정책 담당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정책 설명회 하고 홍보하는 현장평가가 이뤄진다.

또 하반기에는 통장단·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리더들의 평가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어 오는 12월 ‘2025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올해의 베스트 10 정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정책평가박람회의 달라진 점은 시민 참여와 평가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실·국 및 차차구 추천으로 스타정책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으나 올해는 시민공모 방식으로 확대 모집해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1호 공공주도 영광 해상풍력 발전 개시

전남개발공사, 연 9791MWh 전력 생산 탄소 감축 장충모 사장 “전남 해상풍력시대 개막 큰 의미”

전남 최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이 영광에서 개시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최초 공공주도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23일부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업발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4.3MW 규모의 약수 해상풍력은 영광군 백수읍 2.5km 부근 해상에 전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9년 10월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해상 설치를 모두

마치고, 종합 준공검사 과정을 거쳐 5년 7개월 만에 전남 최초로 상업발전을 개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약수 해상풍력이 상업발전을 개시하면서 연간 9791MWh의 전력을 생산해 4000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1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이번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개시는 전 공정에 국내 기술을 집약시킨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발전기 제작은 유니스㈜, 해상 운송·설치는 ㈜동방, 해저케이블은

대한전선(주)이 제작하는 등 국내 기술만으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자립을 입증하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또 사업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도 함께 이어져, 사업협력과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사업지역 어촌계와 사업이 본격 착수하기 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해왔다.

사업 추진 과정 중 국방부와의 협의 등 어려운 과제도 많았지만 학계,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노력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최초로 군 작전성 협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영광 약수 해상풍력의 성공을 바탕으로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안도

장보고 해상풍력(400MW), 신안 후광 해상풍력(323MW)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에는 전국 허가량의 60%에 달하는 18.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영광 약수 해상풍력의 상업발전 개시는 전남의 해상풍력 시대를 개막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러한 계기로 전남에 질서있는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영광·정규 기자 ykjpg98@gwangnam.co.kr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현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도걸 “정부 추경, 홍길동·뒷북·고집불통” 비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23일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정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



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절름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조류충돌 예방법” 항공안전 기본책임 위한 첫걸음

권향엽,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법 발의...공항시설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사진)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발족을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12·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는 데다,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 계획의 근거를 명시했다.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



원회’ 소속인 권향엽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럽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집주인 동의없이 보증사고 이력공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오는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거나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

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약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청춘빛포차광장, 버스킹 명소로 변신

26일~내달 31일 매주 토요일...정호·해밀·소리 등 참여

자동차에 내어준 공간(주차장)을 사람에게 되돌려 준 ‘대자보도시 실증 1호’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이 청춘버스킹 명소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이 오는 26일 오후 6~8시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는 ‘청춘문화누리터’로 변신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춘문화누리터’는 매주 주말 어쿠스틱·재즈·아카펠라 등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는 문화거점으로 탐바꿈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청춘문화누리터’를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첫 번째 실증사업으로 운영, 기후환경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상반기 청춘문화누리터는 ‘청춘버스킹’을 주제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버스킹 20개 팀이 포크, 어쿠스틱, 재즈, 아카펠라,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로 시민의 감성을 두드린다.

참여하는 버스커는 오는 26일 정호(어쿠스틱), 헤디(어쿠스틱 팝), 덩기리어쿠스틱밴드(어쿠스틱), 우물안개구리(포

크) 등이다. 다음달 3일에는 해밀(대중음악), 란지밴드(어쿠스틱재즈), 김도브라스(색소폰), 김나린(펑크스타일기타) 등이, 10일에는 사운드월즈(대중가요), 솔아(어쿠스틱), 파트스릿(어쿠스틱 팝) 등이 선보인다. 이어 17일에는 아홉달(어쿠스틱), 김경호(벌터락기), 섬과소리(어쿠스틱) 등이, 24일에는 싱어송라이터 소리(어쿠스틱), 무드리스트(펑크), 튠에이드(아카펠라) 등이, 31일에는 제즈밴드 M.o.C.(재즈), 점시유랑단(발간집시재즈·인디포크), 최의복(색소폰) 등이 나선다.

청춘빛포차광장 인근 회경루 잔디밭 야외무대에서는 26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도심 속 전통문화예술공연 ‘회경루 : 더 타임리스 스테이지(The Timeless Stage) 2025’가 열린다. 전통행렬 퍼포먼스, 전통타악, 연희놀이 등 융합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버스킹 공연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벽의 미디어월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주관처인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이나 광주문화재단 예술누리터(062-670-5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gwangnam.co.kr

